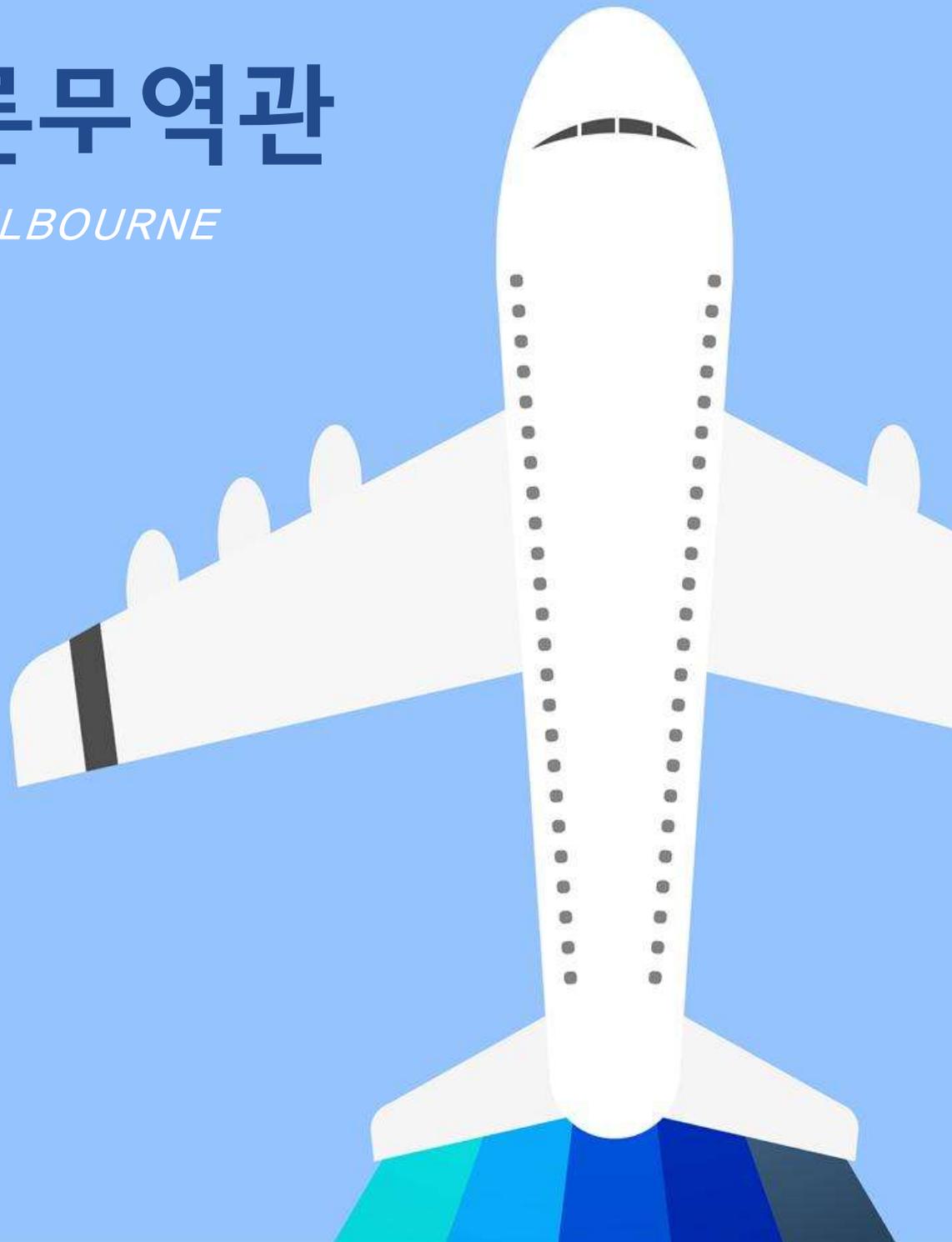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호주

멜버른무역관

KOTRA MELBOURN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호주 국가 개황	1
II. 무역관 관할지역 개황	3
III. 체류 참고자료	5
IV. 호주 역사	10
V. 빅토리아주 관광명소	11
VI. 호주 경제동향	15
VII. 무역관 및 직원 연락처	28

1. 호주 국가 개황

1. 일반사항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치	오세아니아(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적	769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기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수도	캔버라(Canberra)
인구	2,570만명(호주 통계청, 2021년)
민족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행정 구역 및 주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주(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 시드니, 뉴캐슬, 울릉공 - 빅토리아(Victoria) : 멜버른, 질롱 - 퀸즐랜드(Queensland) :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 서호주(Western Australia) : 퍼스 - 남호주(South Australia) : 아들레이드 - 타즈매니아(Tasmania) : 호바트 ○ 2개 준주(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캔버라 -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 : 다윈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Scott Morrison 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5월 18일, 제 46회 호주 총선에서 자유연합당이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 - 호주는 의원 내각제로 총리 임기 없음

2. 지도 및 국기

○ 지도 (6州(state) 2準州(terr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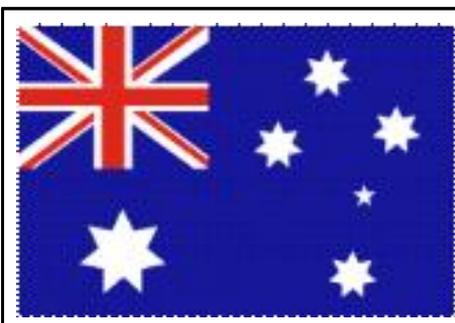
○ 6개 주

- 빅토리아 주(VIC) / 타즈매니아 주(TAS)
- 뉴사우스웨일스 주(NSW)
- 퀸즐랜드 주(QLD)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SA)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WA)

○ 2개 준주

-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NT)
-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 국기



(좌측) 유니언 잭 : 영연방의 일원임을 상징

(하단) 칠각 별 : 연방의 별(Star of Federation)

* 호주 6개 주와 준주를 뜻하는 7각 별

(우측) 5개의 별 : 남십자성을 상징

*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별자리

II. 관할지역(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 주) 개황

빅토리아주(VIC)

1. 일반 현황

- 면적 : 22만 km²(한반도 면적과 비슷)
- 인구 : 668만명(호주내 2위)
- 주도 : 멜버른(Melbourne)
 - 주수상(Premier) : 다니엘 앤드류(Mr. Daniel Andrews, 노동당)

2. 산업특성

1) 호주 바이오, 정보통신, 온라인, 금융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 빅토리아주에는 세계 탑20 의과대학 중 2개 대학이 위치
 - 국제적으로 유명한 의료기업 CSL, Cochlear Implant, Bionic Eye 본사 소재
 - 코로나19 대응 위해 멜버른에 국가공인 수술용 마스크 시험소 설립
- 호주 최대 정보통신 기업이 위치하며 온라인기반 서비스 산업 발달
 - 통신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Telstra 및 호주 주요 온라인기업 Computershare, REA Group, Carsales, Seek이 멜버른을 기반으로 성장
- 호주 4대 은행 중 2개(NAB, ANZ) 소재, 최대 보험사 및 금융사 위치

2) 호주 전체 수출시장의 25% 이상 점유

- 멜버른항은 호주 최대 규모의 수입통관 항구(호주 컨테이너 물동량의 36% 커버)
 - 빅토리아주 뿐만 아니라 타즈매니아, 남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남부 물류 취급

3) IT 관련 산업의 발달 및 연구개발 활발

- 아시아태평양지역 멀티미디어 및 IT산업 거점화 육성 추진
 - e스포츠, 핀테크, ICT 교육 산업의 발달 및 Data-61, NBN Co, 옥스퍼드 대학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센터가 멜버른에 위치
 - 세계 최고의 게임 전시회 PAX Australia(Penny Arcade) 및 호주 최대의 e스포츠 페스티벌 MEO(Melbourne eSports Open) 개최

남호주주(SA)

1. 일반 현황

- 면적/인구 : 98.3만 km² / 177만명(호주내 5위)
- 주도 : 아들레이드(Adelaide)
 - 주수상(Premier) : 스티븐 마샬(Mr. Steven Marshall, 자유당)

2. 산업특성

1) 농식품, 와인 및 목재 제품이 주요 생산 품목(주 총수출의 47%)

- 와인 사업이 발달했으며 호주 프리미엄 와인의 약 80% 생산

2) 호주 방위산업 지원 활발

- 방위분야 중소기업·진출 희망 기업을 지원하는 방위산업 역량센터 (Centre for Defence Industry Capability) 애들레이드 위치
- 연방정부는 남호주주의 방위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해군 조선 계획 (Naval Shipbuilding Plan)’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호주달러 투입

3) 항공우주산업의 주축지

- 항공우주 관련 전담기구가 없는 소수 선진국 중 하나였던 호주는 애들레이드에 국립항공우주국(Australian Space Agency) 설립

타즈매니아주(TAS)

1. 일반 현황

- 면적 : 6.7만 km² / 인구 : 54만명(호주내 6위)
- 주도 : 호바트(Hobart)
 - 주수상(Premier) : 피터 구트윈 (Mr. Peter Gutwein, 자유당)

2. 산업특성

1) 농수산업, 광업, 관광업 발달

- 품질 좋은 식료품 생산으로 유명하며, 농작물(감자, 과일), 축산물(소고기, 양고기), 수산물(연어, 굴, 전복) 등의 주요 생산지
- 약 40%의 국토가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의 보호구역인만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관광지로 인기

2)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심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약 96%이며, 수력발전으로 대부분의 전력공급 담당
- 호주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Hydro-Electric이 호바트에 소재

□ 입국절차

- 2021년 6월 23일 기준, 코로나19 제한 조치에도 입국 가능한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경우, 입국하는 즉시 지정된 시설에 14일간 격리(주에 따라 격리비용 발생). 출국의 경우,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을 시에만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는 허가 없이 출국 가능
- 여권, 항공권, 입국카드(Incoming Passenger Card)를 호주 공항 입국 심사 창구에 제출, 입국카드는 기내 배부 및 입국 심사장에 배치되어 있음. 호주 자동화 출입국 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Smart Gate) 이용 시, 따로 입국 심사 창구로 갈 필요가 없으며, 짐을 찾은 후 세관 신고와 함께 입국카드를 세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됨. 참고로 호주에 착륙 전에 미리 작성하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됨.
-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은 호주의 자동화 출입국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를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전자여권 소지자에 개방함. 해당 자동 출입국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지정된 15개 국가에서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함. 스마트게이트는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캐언즈, 다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이용 가능

〈스마트게이트 사용방법〉

1단계 :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	2단계 : 스마트게이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여권을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 삽입 2) 화면에 나타난 질문에 스크린을 터치하여 답변 3) 모든 답변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키오스크에서 티켓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티켓을 스마트게이트에 삽입 2) 바닥의 발모양 사인 위에 서서 정면 카메라 응시 및 사진 촬영 3)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기계에서 티켓 회수. 회수한 티켓은 체크인 짐을 찾은 후, 입국신고서와 함께 세관 담당자에 제출

자료원 :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

2. 멜버른 지역 기후

○ 방문기간 중 멜버른의 기후

- 남반구에 위치한 멜버른의 날씨는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과 정반대라고 볼 수 있음. 즉, 한국의 봄·여름은 멜버른의 가을·겨울임. 멜버른은 ‘하루에 사계절을 모두 겪을 수 있다’는 말처럼 기온차가 큼. 항구도시인 만큼 풍속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은 편임
- 가을, 겨울에는 바람막이 및 패딩 점퍼가 필수이며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해 햇빛 차단용 모자와 선크림을 수시로 바를 것을 권유함. 햇볕이 따가운 여름에는 탈수현상을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섭취 필요

〈멜버른 월별 평균 기온〉

(단위 : °C)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	20.2	18.3	15.3	12.8	10.4	9.9	10.8	12.4	14.3	16.8	18.2
최고	26.0	25.8	23.9	20.3	16.7	14.1	13.5	15.0	17.3	19.7	22.0	24.2
최저	14.3	14.6	13.2	10.8	8.7	6.9	6.0	6.7	8.0	9.6	11.2	13.0

3. 입국 시 통관 유의사항

- 식품, 목제품, 면세 한도 AU\$900 초과 물품, AU\$10,000(US\$7,000) 이상 현금 휴대 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신고서 기재 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함
 - 특히 김, 젓갈, 고추장, 오징어, 사과, 과자류 등 모두 해당되며, 포장 과자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중요)
- 통관 중 입국 신고서에 미신고 품목 적발 시 현장에서 벌금(AU\$340) 부과될 뿐만 아니라 통관 수속이 지연됨
-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있는 경우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수속 지연의 원인이 됨
- 담배 25개피 또는 시가(cigars) 25그램 이상 반입 불가

4. 환율

- AU\$ 1 = 861.71원 (2021.6.24. 기준)
- 호주 내 미화는 통용되지 않으므로 호주화 환전은 필수이며 한국 내 환전이 유리함
- 호주 내 환전은 소액의 경우 은행과 환전소의 차이가 없음

5. 팁, 카드결제 관련

- 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불 시 평균 식대의 10% 이하가 일반적임
- 카드결제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아멕스나 다이너스를 거부하는 곳도 일부 있음
- 호텔, 레스토랑 등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약 0.3%)를 지불하는 곳이 많음

6. 전화사용

- 공중전화 : 기본 50센트(시내)
- 한국으로의 전화
 - 다이얼: 0011-82-지역번호-전화번호/수신자부담전화 : 1800-88-1820
- 긴급 전화 : 000(화재, 경찰신고, 구급차 등)

7. 시내 교통

- 대중교통수단 : 트램(Tram)
 - 구간별 요금적용 : 기본요금 AU\$4.50(2시간 내 무제한 이용 가능), 하루 24시간 무제한 이용가능(Daily Fare Cap) 주중 AU\$9.00, 주말 AU\$6.50
 - 교통카드 : 편의점 또는 뉴스 에이전시에서 Myki 카드구입(AU\$6.00) 후 충전하여 사용
 - 노선도 : 시내 Tram 정류소(호텔 내 안내 리플렛 등)
- 택시 : 전화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
 - 택시요금 : (낮) 기본요금 AU\$4.20, AU\$1.622/Km 부과(한국 대비 3배 수준)
 - 택시전화 : 13-2227(13Cabs), 13-1008(Silver Top), 13-2211(Arrow)

8. 기타 특기사항

- 인터넷 사용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호텔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나 별도 사용료(보통 A\$20~30/1일)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 전압은 240볼트, 50Hertz임.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시, 삼각 플러그(일명 돼지코)가 필요함
- 호주에서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금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차량은 좌측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미이행시 A\$282(약 25만원)의 벌금을 징수함

9. 멜버른 시내 주요 식당

구분	식당명	전화	주소
한식	Dooboo (북창동 순두부)	0406 712 475	261 Swanston St, Melbourne
한식	Guhng (궁)	03 9041 2192	19 McKillop St, Melbourne
한식	Bornga (백종원 본가)	03 9650 8878	1/178 Little Bourke St, Melbourne
한식	Mahn doo (만두)	03 9670 1167	365 La Trobe St, Melbourne
양식	Rare Steakhouse	02 9663 3373	6/61 Little Collins St, Melbourne
양식	Meat&Wine Co.	03 9696 5333	Freshwater Place, 3 Queensbridge St, Southbank
양식	Gradi Crown	03 9696 9888	Crown Towers Melbourne, 8 Whiteman St, Southbank
베트남식	Hochi Mama	03 9078 2285	35 Little Bourke St, Melbourne
퓨전식	Lucy Liu Kitchen and Bar	03 9639 5777	23 Oliver Lane, Melbourne
카페	Higher Ground	03 8899 6219	650 Little Bourke St, Melbourne

IV. 호주 역사

□ 유럽인 출현 이전

- 호주 원주민(Aborigine/애보리지니)들은 아시아 남동부 해안이 호주 대륙과 근접하였던 6만년 전부터 거주해 왔으며 몇 백 개의 소규모 종족으로 구성,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기 전 원주민 수는 60~100만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
-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 호주 원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1788년에는 백인이 호주의 주인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1800~1900년

- 17세기 초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인에 의해 호주 대륙이 발견되었으며 1688년 영국인 윌리엄 담피아가 대륙 북서부 해안에 상륙, 1770년에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 이 동부 해안인 BOTANY BAY에 상륙하여 영국 영토로 선언함
- 그 후, 1788년 필립 함장이 11척의 선박에 1,030명(이중 736명이 죄수)의 1차 이주민을 인솔하고 호주에 도착, 죄인 유배지를 건설함
- 1823년부터 죄인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 6개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840년부터 죄수 이민이 점차 자유 이민으로 대체됨
- 1850년대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중국인 유입이 급속히 진행, 1857년에는 23,623명에 달함. 중국인의 급증으로 유럽인은 중국인들의 하인계급으로 타락한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백호주의 법을 제정하기도 함

□ 1901년 이후(연방)

- 호주 연방법이 1900년 7월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고, 1901년 6개의 식민지를 포함하는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연방의회가 멜버른에 설치됨
- 1913년 CANBERRA를 연방의 수도로 지정하여 1927년부터 천도가 시작되었으며, 193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자치를 승인 받음
- 1956년에는 멜버른 올림픽을 개최, 1962년에는 원주민 참정권을 인정함. 1971년에 OECD에 가입, 1975년 파푸아뉴기니가 호주에서 독립하였고,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을 개최, 2018년 자유연립당의 Scott Morrison이 31대 총리로 당선되어 현재에 이름

V. 빅토리아주 관광명소

□ 그레이트 오션 로드(Great Ocean Road) : 왕복 총 10시간



멜버른 남서쪽의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토키(Torquay)에서 론(Lorne), 아폴로베이(Apollo Bay), 포트캠벨(Port Campbell) 국립공원, 와남불(Warmambool)에 이르는 300km의 해안길로 해식작용으로 형성된 온갖 형상의 바위섬과 절벽이 자연과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며 타임지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선정함

1919년 공사가 시작되어 앵글시(Angelsea)에서 아폴로베이 구간까지 1932년에 완공된 곳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호주 정부는 퇴역 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안선이 아름다운 이곳에 삼과 곡괭이만으로 공사를 하여 세계적 명소를 탄생시켰음



포트캠벨 국립공원의 12사도(Twelve Apostles)는 석회암으로 형성된 해안이 거센 파도에 깎여 아치형 통로가 생기고 다시 거친 파도와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12개의 작은 바위섬이 예수의 열두제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이곳은 지금도 해식작용에 의해 매년 13cm씩 깎여나가고 있음

포트캠벨은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중 하나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로 1800년대 영국과 멜번을 오가던 160여척의 선박들이 근처에서 침몰했음. 특히 로치아드 조지(Loch Ard Gorge)는 영국의 로치아드(Loch Ard)호의 이름을 딴 곳으로 1878년 3개월의 항해 끝에 멜번에 도착, 정박을 눈앞에 두고 Muttonbird Island의 절벽에 부딪혀 난파되어 54명 중 19세 승선자 Tom과 18세 승객 Eva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곳임

□ 필립 아일랜드(Phillip Island) : 왕복 총 5시간



필립 아일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27~33cm 크기의 난쟁이 펭귄의 서식지로, 해가 진 이후 저녁나절에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정겨운 펭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펭귄의 귀가 시간은 계절마다 상이하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함

□ 소버린힐(Sovereign Hill) : 왕복 총 4시간



1851-1861년의 골드러시 시대를 재현해 놓은 한국의 민속촌 같은 곳으로, 실제 지하 금광을 따라 탐험할 수 있음

중국인 마을과 채굴광, 광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리에 걸린 간판이며 소품이 모두 실제로 사용했던 것이며 일부 가게(Bakery 등)는 현재 상업을 하고 있음

□ 단데농마운틴 퍼핑빌리 (Dandenong Mountain Puffing Billy)



멜버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데농 마운틴에는 산림지대를 통과하는 100년 된 증기기관차 퍼핑 빌리 (Puffing Billy)가 있음

출발역인 벨그레이브 역을 출발하여 종착역인 켄부르그 역까지 약 1시간 20분을 달리며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인 원시림을 달리는 기분이 색다름

□ 플린더스 스테이션(Flinders Station)



호주의 최초의 기차역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모든 열차들이 모두 이곳을 종착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고풍스러운 인도풍의 건물로 멜버른 방문 시 꼭 한번은 접하는 곳이며, 2004년 국내에서 방영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페 CF 촬영지로서도 알려져 한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음
역 맞은편의 연방광장(Federation Square)에는 다채로운 공연이 많고 약속 장소로도 유명함

□ 로얄 보태니컬 가든(Royal Botanic Garden)



19세기 중반 조성된 화원으로 전체면적이 약 36ha(4만평)인 호주 최대 규모를 자랑함
원래는 시내외곽에 위치한 습지대였으나, 지금은 멜번 중심에 위치한 도심 공원으로 유명하며, 영국식 정원 설계에 따라 건설되었음
빅토리아주 총독 관저(Government House)가 공원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쟁기념관(Shrine of Remembrance)이 공원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 퀸 빅토리아 마켓(Queen Victoria Market)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1878년부터 오픈하였음
시장 이전에는 공동묘지였으나, 현재 멜버른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의 남대문 시장처럼 호주 서민들의 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는 곳임

□ 유레카 타워(Eureka Tower)



유레카 타워는 높이 297.3m로 남반구 가장 높은 전망대이자,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주용 건축임 88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멜버른 정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꼭대기 층의 Edge에서는 투명한 유리 바닥 밑으로 지면을 볼 수 있어 스릴이 넘침

1850년대 골드러쉬 시절의 멜버른의 명성을 말해주듯 건물 꼭대기는 24K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유레카'라는 이름은 골드러쉬 시절 영국의 혹독한 세금정책에 반발하여 광부들이 일으킨 호주의 유혈 충돌인 "Eureka Revolution"에서 따옴

□ 피츠로이 정원(Fitzroy Gardens)



멜버른 시내 서쪽에 위치한 정원으로 빅토리아주가 뉴사우스웨일즈주(NSW)로부터 분리될 당시 NSW주 총독인 찰스 피츠로이(Charles Fitzroy)경의 이름을 따랐으며 하늘에서 보면 영국의 유니온잭의 모양을 따라 공원 내 산책로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음



1993년 호주 대륙을 발견한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의 영국 생가를 분해, 모든 벽돌을 그대로 운반해 와서 이 정원에 복원하였음. 이곳에서 18세기 영국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시품들이 보관되어 있음

□ 세인트 패트릭 성당(St. Patrick's Cathedral)



1858년 착공해 약 70년에 걸쳐 1940년 완공된 세인트패트릭 성당은 호주의 가장 훌륭한 19세기 빅토리아 고딕 양식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며, 당시의 예술적 기교와 솜씨를 볼 수 있는 곳

호주에서 가장 높은 성당(105m)이며, 청회색 사암(블루스톤)을 사용하여 건축되어 독특한 색의 외관을 자랑함

VI. 호주 경제동향

1. 호주의 경제

(1) 주요 경제지표(2021년 9월 기준)

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 (%)	2.8	1.9	-2.4	5.3(e)
명목 GDP (십억\$)	1,421.3	1,391.5	1,359.3	1,620.0(e)
1인당 명목 GDP (\$)	56,465.24	54,464.06	52,824.82	62,720.00(e)
물가상승률 (%)	1.8	1.8	0.9	1.7
실업률 (%)	5.3	5.1	6.5	5.1
외환 보유고 (백만\$)	49,758.68	55,730.56	32,754.77	35,341.33
정부부채 (% of GDP)	41.7	47.5	63.1	72.1(e)
이자율 (%)	1.5	0.75	0.1	0.1
총 수출액 (백만\$)	257,097.52	270,982.08	250,610.79	76,808(Q1)
총 수입액 (백만\$)	227,011.56	213,750.41	203,160.32	58.221(Q1)
무역수지 (백만\$)	30,085.96	57,231.67	47,450.47	18,587(Q1)
해외직접투자 (백만\$)	6,362.03	5,397.25	-	-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68,047.91	36,156.16	-	-

주: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전년대비 증감률), 2021년 지표는 예상치 또는 기준일에 따른 수치

자료원: IMF, 호주 통계청, 호주 준비은행, Global Trade Atlas, UNCTAD Stat

(2) 주요 경제특징

○ 지역에 따른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 동부 3개 주(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가 전체 인구의 78%, GDP의 75.2%를 점유함.

〈호주 주요 주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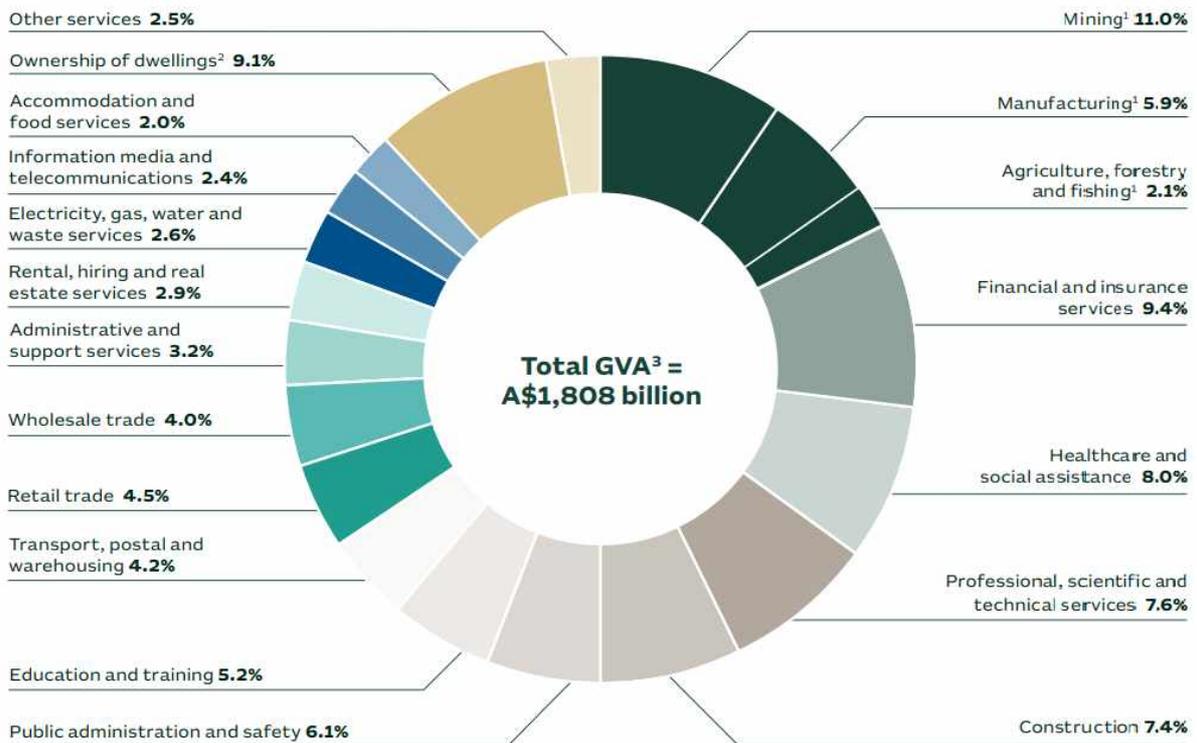
주(State)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기 타
GDP 비중 (인구)	32.6% (817만명)	23.7% (666만명)	18.9% (519만명)	24.8% (566만명)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2020)

○ 산업별 GDP 비중

- 호주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금융, 의료, 교육, 관광)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광업, 에너지, 농·축산업이 발달함.

〈호주의 주요 산업별 GDP 기여 비중〉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2020), 호주 무역투자진흥기관(Austrade 2020)

- (농·수산·임업) 총 생산량의 약 70%를 수출하며 전체 GDP의 2.2%(690억 달러)를 점유함.
- 농·수산·임업 총수출의 86%는 아시아 8개국(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시장으로 수출됨.
- 2020년 기준 농축산 총 수출액인 530억 호주달러 중 70%는 밀, 와인, 양모, 양고기, 과일, 소고기 등 15개 품목이며 소고기가 21%을 차지함.
- 2020년 중국은 호주산 보리, 와인, 목재, 소고기, 랍스터 대상 고관세를 연이어 부과하며 양국간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호주는 영국, 인도 등 농축산업 교역 파트너 다변화를 위해 노력함.

호주의 주요 농목축 자원

- | | |
|---------------------------------|---------------------------|
| · 밀 : 60억 달러, 1,520만톤 생산 | · 소고기 : 130억 달러, 240만톤 생산 |
| · 보리 : 30억 달러, 890만톤 생산(수출량 3위) | (수출 123만톤, 세계 2위) |
| · 카놀라 : 10억 달러, 230만톤 생산 | · 양고기 : 40억 달러 |
| · 면화 : 10억 달러 | · 우유 : 44억 달러, 88억 리터 생산 |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2020), 농림자원경제국(ABARES 2020), 호주 축산공사(MLA 2020)

- (광업) 호주는 석탄, 철광석, 원유뿐만 아니라 신 광물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70% 가량이 자원 수출임.
- 2019년 기준, 호주 전체 수출액 약 2,710억 달러 중 광업·에너지 수출이 1,850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68% 비중을 차지함.
- 코로나19 회복세를 타고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철광석,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광물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 철광석 (Iron Ore) : 매장량 세계 1위(29.0%), 생산량 세계 1위(36.0%)
- 석탄 (Black Coal) : 매장량 세계 4위(10.0%), 생산량 세계 4위(8.0%)
- 매장량 세계 1위 : 금(19%), 금홍석(50%), 납(38%), 우라늄(34%), 아연(29%) 등
- 기타 : 보크사이트(매장량 2위), 코발트(매장량 2위), 동(매장량 2위), 리튬(매장량 2위) 등

자료원: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2020)

- (제조업) 2020년 기준, GDP 기여 비중 5.9%이나 첨단 기술 적용으로 국가 주요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부상
- 호주는 높은 임금과 에너지 가격에 따른 생산비용 및 물류비용이 높아 전통적인 제조업은 쇠퇴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환경 개선으로 소량 생산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첨단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함.
- 특히,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드러난 공급망의 높은 해외 의존도,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수급차질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선진화를 강화하고자 2019년 4차 산업 성장 계획 Industry 4.0에 이어 2020년 제조업 현대화 전략(Mordern Manufacturing Strategy)를 발표하고 15억 호주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호주 첨단 제조업은 2030년까지 호주 경제에 3,000억 호주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함.

☞ 호주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점 분야

- | | |
|-----------------|----------------|
| ·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 · 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
| · 식음료 | · 방위 |
| · 의료바이오 | · 우주·항공 |

자료원: 호주 연방정부(2020)

○ 주요 유망산업

-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은 2021년 2월 공개적으로 호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이에 신재생·수소 에너지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함.
- 2020년 기준 호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전력 생산의 27.7%까지 증가해 전년대비 3.7% 성장함. 호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로 그린수소 가격을 1kg에 2 호주달러로 낮추고 2030년까지 아태지역 수소 수출국으로 도약하고자 함.
- 그 외 의료바이오, 방산, 항공·우주, 스마트 농업이 미래 성장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3) 호주의 경제 동향(2021년 6월 기준)

○ 2020년 3분기,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하며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 (GDP) 2020년 상반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기침체를 선언했지만 하반기 V자형 성장세로 전환하여 2021년 1분기 명목 GDP는 1.8%로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함.
* 실질 GDP: $\Delta 0.3\%$ ('20.Q1) $\rightarrow \Delta 7.0\%$ ('20.Q2) $\rightarrow 3.4\%$ ('20.Q3) $\rightarrow 3.1\%$ ('20.Q4)
- (금리) 호주 준비은행은 2020년 시장유동성 확대를 위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2021년 6월 기준 0.1%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준비은행은 물가상승률 2.0-3.0% 달성 때까지 해당 금리를 유지할 것이나 임금상승률 저조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궤도 안착에는 2-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금리: 0.75%('19.10) \rightarrow 0.5%('20.3.3) \rightarrow 0.25%('20.3.19) \rightarrow 0.10%('20.11.2~)
- (실업률) 2020년 6월 7.4%까지 상승했으나 2020년 12월 6.6%로 하락 후 2021년 5월 5.1%까지 하락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
* 실업률: 5.3%('20.1) \rightarrow 7.4%('20.6) \rightarrow 6.6%('20.12) \rightarrow 5.6%('21.3) \rightarrow 5.1%('21.5)
- (물가상승률) 2021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했으며 자동차 연료가 8.7%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가구는 -3.0%로 가장 큰 하락을 나타냄. 2020년 하반기부터 유류 가격 상승, 동시에 외부 활동 및 국내 여행이 재개되어 자동차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임.
- (소비동향) 코로나19 안정 직후 급증한 소비는 2021년 들어 소폭 감소했으나 개인 저축율 상승에 따른 주택경기 활성화는 지속되고 있음.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감염 확산의 불안감과 주요 은행들이 이자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어 내수경기 정체가 우려됨.
- (환율) 2020년 6월 0.70 달러 회복 이후 2021년 2월 0.79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 상승세로 2021년 상반기 0.76~0.79 달러 선에 안착함. 이는 호주의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 회복으로 호주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호주 달러 가치 상승을 견인한 영향임. 미국 연방 준비은행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 동결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할 경우,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되어 호주 환율은 0.80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정부, 국경봉쇄 유지하고 2년 연속 경기부양 중심의 예산 편성

- 호주 연방정부는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 국경 봉쇄를 2022년 초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뉴질랜드 외 싱가포르, 한국 등 코로나 방역 선진국들과의 트래블 버블 시행을 고려중임.
- 이러한 국경봉쇄와 함께 2020/2021년 연방예산안은 늘어난 정부부채에도 고용증진 및 경제회복 우선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국내 환경 조성 및 내수 경기부양에 주력함. 특히,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와 호주 준비은행의 최저 금리 유지로 시장 유동성을 확대코자 함.
- 2021/2022년 예산안에서도 고용안정 및 피해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교통 중심의 인프라 개발에 추가 152억 호주달러를 투입하기로 함. 더불어, 호주의 미래 성장 먹거리 산업으로서 첨단기술 중심의 신재생·수소 에너지, 방산, 첨단 제조, 의료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기로 함.

○ 2021년 호주 경제전망, GDP 4.5% 예상

- IMF는 2021년 4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1년 호주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했으며 OECD와 NAB 은행도 2021년 3월 전망에서 호주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함.
- 호주의 주 교역국인 중국, 미국, 한국 및 유럽 내 백신 공급이 확대되고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실행되고 있어 2021년 호주의 자원, 에너지 수출은 지속 호조가 예상됨.
- 코로나 재확산은 여전히 호주 경제에 위협요인임. 2021년 6월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연이어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이 발생함. 빅토리아 주는 6월 한달 간 4주간의 봉쇄조치를 시행했고 다시금 영업을 중단하게 된 외식·관광업은 10억~20억 호주달러의 피해를 입음. 2021년 6월 말 발생한 시드니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하였고 국내 다른 주들도 시드니로부터의 방문을 금지함.

(4) 한-호 경제협력

○ 제4차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2020년 12월 9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제 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함. 해당 회의에서는 FTA 발효 7년차인 한-호 FT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양측은 FTA가 상호 호혜적인 교역구조를 토대로 양국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해 온 점을 공감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환의 가속화, FTA 활용률 통계 정기 교환 하는 방안을 논의함.
- 2014년 12월 12일 정식 발효된 한-호 FTA에 따라 우리 기업은 호주 수출 시 특혜 관세 및 비관세 혜택을 꾸준히 적용받고 있음. 2019년 기준 한-호 FTA 수출 활용률은 82.8%로 여타 FTA 활용률 평균인 74.9%를 상회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호주 수소산업 협력 라운드테이블 개최

- 2021년 4월 27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주한호주대사관은 한국-호주의 수소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호 수소 협력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한-호 수소협력 라운드테이블에는 양국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금융사 전문가가 참가해 양측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함.

○ 2021년 G7 회의에 참석한 한국-호주 정상간 대면 양자회담

- 2021년 6월 12일, G7에 참석한 한국, 호주 양국 정상은 단독 회담을 갖고 한·호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함.
- 특히, 수소 생산·활용 관련한 저탄소 기술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교류 확대가 필요함을 공감하였음.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개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2. 호주의 무역

(1) 주요 순위

〈2020 호주 10대 수입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고
1	중국	57,621	-
2	미국	23,746	-
3	일본	12,086	-
4	태국	9,595	-
5	독일	9,323	-
6	말레이시아	6,704	1↑
7	한국	6,025	1↓
8	싱가폴	5,248	-
9	뉴질랜드	4,951	1↑
10	영국	4,790	1↑
합계		202,277	-

〈2020 호주 10대 수출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고
1	중국	90,502	-
2	일본	12,086	-
3	미국	9,595	2↑
4	한국	9,323	1↓
5	영국	6,704	1↓
6	인도	6,025	-
7	뉴질랜드	5,248	-
8	대만	4,951	-
9	싱가폴	4,790	1↑
10	홍콩	4,710	1↓
합계		254,531	-

자료원: ITC Trade Map

〈2020 호주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기계 및 원자로 부품 등	30,554
2	전자기기 및 부품	24,017
3	차량 및 부품	23,768
4	광물성 연료	17,015
5	의료용품	8,742
6	광학, 사진, 수술기기 등	8,019
7	플라스틱	6,158
8	가구, 침구, 매트리스 등	4,678
9	철강 제품	4,455
10	의류	3,320
합계		202,277

〈2020 호주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광물성 연료	90,773
2	석유와 역청유	66,048
3	귀금속	19,551
4	육류	10,405
5	희토류	5,175
6	기계 및 원자로 부품 등	4,376
7	곡물	3,805
8	의료용품	3,464
9	전자기기 및 부품	3,103
10	알루미늄	3,058
합계		254,531

자료원: ITC Trade Map

(2) 교역 동향

- 호주 교역 규모는 2016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회복 추세
 - 2020년 기준 호주의 전체 교역액은 4,537억 미달러로 2019년 대비 6.4% 감소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對호주 4위 교역국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및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 규모가 감소

〈호주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국〉

(단위: 억US달러)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3,818	4,525	4,841	4,847	4,537
1	중국	1,050	1,255	1,433	1,581	1,587
2	일본	411	499	582	544	422
3	미국	304	318	330	353	368
4	한국	210	317	276	259	223
5	영국	129	99	90	155	151

주: 순위는 2020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호주의 수출은 2015년까지 지속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점차 호조
 - 2019년 호주의 총 수출액은 2,710억 미달러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2020년 전년 대비 7.54% 하락한 2,506억 미달러임.
- 호주의 수입은 2017년과 2018년 2년간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도부터 다시 감소세
 - 호주의 총 수입액은 2019년 2,138억 미달러이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4.95% 감소한 2,032억 미달러임.

〈호주의 수출입 동향〉

(단위: 억US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1,925	2,311	2,571	2,710	2,506
수입	1,893	2,214	2,270	2,138	2,032
무역수지	32	98	301	572	47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3) 수출

○ 주요 수출 품목

- 호주 주요 수출품이었던 곡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5% 이상 수출이 감소했으나 2020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광물성 연료,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광물, 귀금속 등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이 상승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억US달러, %)

순위	품 목	2018		2019		2020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광물성 연료	911	30.29	878	-3.58	612	-30.26
2	광물	604	1.69	797	31.89	937	17.66
3	귀금속류	161	4.99	180	11.77	196	8.71
4	육류	100	11.57	113	12.83	100	-11.58
5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82	32.85	63	-23.26	51	-18.08
6	핵 반응기계	48	3.70	48	0.02	43	-9.60
7	의약품	30	17.10	38	27.15	34	-10.24
8	특수지정상품	35	-21.11	36	4.05	45	24.84
9	전자기계	32	3.18	35	9.03	31	-11.81
10	곡류	49	-25.64	34	-29.52	38	10.35

주: 순위는 2020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국

-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58% 이상을 차지함.
- 2019년에는 영국이 호주의 수출 대상국 4위였으나 2020년 미국이 대체함.
-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주요 수출국 10위 내 일본, 인도, 대만으로의 수출 점유율이 감소함.

〈주요 수출국〉

(단위: 억US달러, %)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878	34.16	1,030	38.03	1,001	39.97
2	일본	413	16.07	394	14.56	300	11.97
3	한국	177	6.88	175	6.49	160	6.41
4	미국	97	3.77	102	3.79	131	5.24
5	영국	36	1.42	105	3.88	103	4.11
6	싱가포르	73	2.84	83	3.05	87	3.46
7	뉴질랜드	72	2.79	71	2.61	70	2.79
8	인도	124	4.84	98	3.61	69	2.75
9	타이완	78	3.05	89	3.28	68	2.70
10	홍콩	78	3.03	52	1.93	51	2.03

주: 순위는 2020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4) 수입

○ 주요 수입 품목

- 2020년 호주 수입 품목 중 광물성 연료의 수입이 41% 감소했으며 자동차 수입은 10% 가량 감소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호주 귀금속류 수입이 30% 이상 증가함. 경기 회복을 위한 산업 활동이 재개되면서 광물성 연료, 전자기계의 수입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억USD달러, %)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핵반응 기계	318	10.48	306	-3.94	308	0.74
2	전자기계	256	12.03	244	-4.53	242	-1.15
3	자동차	300	2.00	267	-11.11	241	-9.87
4	광물성 연료	302	32.22	270	-10.79	159	-41.03
5	의약품	82	3.78	84	2.44	88	4.83
6	귀금속류	66	-0.18	66	-0.13	87	31.95
7	광학 및 의료기구	83	6.23	81	-2.43	81	-0.44
8	플라스틱류	64	9.84	58	-8.50	62	6.41
9	가구, 침구 및 램프 등	48	9.39	46	-5.18	48	4.44
10	철 및 철강제품	50	21.64	45	-10.80	45	-0.02

주: 순위는 2020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태국으로 상위 4개국이 전체 수입의 51%를 차지
-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2020년 기준 호주 전체 수입액의 28%이상을 점유하며, 2위 수입국인 미국보다 수입 규모가 2배 이상 높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까운 말레이시아가 수입국 6위로 상승
- 한국은 2017년 對호주 4위 수출국이었으나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20에는 7위를 차지함.

〈주요 수입국〉

(단위: 억US달러, %)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555	24.45	551	25.75	586	28.85
2	미국	233	10.28	250	11.70	237	11.68
3	일본	168	7.42	149	6.99	122	6.01
4	태국	111	4.91	103	4.83	99	4.86
5	독일	112	4.95	102	4.77	94	4.64
6	말레이시아	96	4.25	76	3.57	67	3.29
7	한국	99	4.35	84	3.92	63	3.08
8	싱가포르	85	3.76	72	3.36	51	2.50
9	뉴질랜드	59	2.58	54	2.53	49	2.40
10	영국	54	2.38	50	2.35	48	2.38

주: 순위는 2020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5) 한-호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2020년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약 62억 미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57% 감소, 수입은 187억 미달러로 9.23% 하락한 수치로 무역수지는 125억 미달러 적자

〈對호주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US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수출	19,862(164.8)	9,610(-51.6)	7,891(-17.9)	6,189(-21.57)
수입	19,160(26.3)	20,719(8.1)	20,608(-0.5)	18,707(-9.23)
무역수지	701	-11,109	-12,717	-12,51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2021년 1~5월까지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34억 미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2.7% 증가했으며 5월의 경우 153%가 증가함. 수입은 112억 미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2% 증가한 수치로 무역수지는 77억 미달러 적자

〈2021년 1~5월 기준 호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US달러, %)

구분	2021년1월	2021년2월	2021년3월	2021년4월	2021년5월
수출	620(12.2)	626(36.5)	725(26.7)	765(98.3)	682(153.6)
수입	1,824(-5.4)	2,203(67.5)	2,686(70.9)	2,390(55.6)	2,069(48.3)
무역수지	-1,203	-1,576	-1,960	-1,624	-1,38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상위 10개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거나 소량 증가한 반면, 철도차량의 수출액은 318%로 큰 폭으로 증가함
 - 2021년 1~5월까지 호주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대다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 특히, 화물자동차, 승용차, 경유, 휘발유의 수출이 전년 동기비 큰 폭으로 상승함.
 - 반면, 제트유 및 등유의 수출은 전년 동기비 -63.5%로 2019년부터 지속 감소함.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2021.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2,008	-5.2	1,668	-16.9	981	98.2
2	경유	1,065	-40	840	-21.1	603	105.8
3	휘발유	590	-27.7	405	-23.5	281	53.9
4	제트유및등유	1,127	-27.5	173	-84.6	49	-63.5
5	축전지	142	2.9	149	5.3	82	32.7
6	건설중장비	108	-33.4	113	4.0	59	18.6
7	철도차량	26	0.0	111	318.3	88	0.0
8	합성수지	123	-26.6	108	-12.1	60	18.6
9	알루미늄조각공품	108	-6.9	107	-0.6	43	-9.9
10	화물자동차	83	-7.8	89	7.0	88	234.7

주: 순위는 2020년 기준, 2021.1-5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수입) 2021년 경제 재가동으로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이 재상승
 - 주요 수입 품목 1~3위인 철광, 유연탄, 천연가스는 2020년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1년 상반기 다시 증가, 특히 철광 수입은 85.8% 증가함.
 - 2019년 수입이 감소했던 원유와 아연광의 수입은 2020년부터 증가하여 2021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20.9%, 118.2% 큰 폭으로 증가.
 - 2020년까지 상위 10개 품목 순위에 없던 금은 2021년 1~5월, 4억410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969.6% 상승함.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2021.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철광	4,705	38.2	4,977	5.8	3,265	85.8
2	유연탄	5,331	-1.7	3,621	-32.1	1,959	13.7
3	천연가스	3,739	-12	3,025	-19.1	1,737	6.2
4	가축육류	1,266	1.6	1,276	0.8	642	12.9
5	동광	510	7.4	910	78.4	594	88.4
6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47	-11.2	764	18.1	330	11.7
7	기타금속광물	539	-4.4	635	17.9	257	3.1
8	원유	498	-38.6	545	9.5	518	420.9
9	아연광	307	-50.8	334	8.7	259	118.2
10	곡류	345	0.4	332	-3.7	143	3.7

주: 순위는 2020년 기준, 2021.1-5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3. 호주의 투자

(1) 투자유치 동향

○ **지난 3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 유치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20년 투자 유치액은 누계 기준 3조 9,909억 호주달러로 전년대비 971억 호주달러 증가 (호주 통계청은 2001년 부 연간 누계 기준으로 투자액 공시)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누계 기준 9,294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전체 23.3% 비중을 차지, 영국, 벨기에, 일본이 뒤따름.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2020년 누계 327억 호주달러로 17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호주투자의 0.8%의 비중을 차지함.

〈2018-2020년 국가별 호주 투자현황(누계)〉

(단위: 십억 호주달러, %)

순위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지난 5년간 증가율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1	미국	957.2	1,013.5	929.4	23.3	2.3
2	영국	583.8	687.3	737.6	18.5	9.1
3	벨기에	315.3	348.0	408.6	10.2	10.0
4	일본	234.4	243.9	264.5	6.6	4.5
5	홍콩	123.7	144.5	141.6	3.5	10.9
6	싱가포르	90.2	100.1	116.5	2.9	3.2
7	룩셈부르크	78.1	86.7	104.7	2.6	9.5
8	네덜란드	84.1	88.6	84.0	2.1	4.8
9	중국	68.5	79.3	79.2	2.0	0.2
10	뉴질랜드	47.1	64.5	66.3	1.7	11.1
17	한국	30.7	31.7	32.7	0.8	7.5
	합계	3,577.8	3,893.8	3,990.9	100	5.9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5월 중), 2001년 - 2020년 누계 투자액
 자료원: 호주 통계청, 외교통상자원부(2021.5)

- **호주 최대 투자유치 분야는 광업**이며 지난 5년간 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공학, 기술업
- 2020년 호주 광업에의 투자금액은 누계 3,604억 호주달러로 전체의 35.1%를 차지함.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이나 지난 5년간 3.1% 증가함.
- 2020년부터 제조업에의 투자 정보가 기밀화되어 미공개이나 2위로 예상함.

〈2018-2020년 산업별 호주 직접투자(누계)〉

(단위: 십억 호주달러, %)

순위	업종	2018년	2019년	2020년		지난 5년간 증가율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1	광업	374.6	375.8	360.4	35.1	3.1
2	부동산업	103.6	111.3	120.0	11.7	15.1
3	금융 및 보험업	112.7	110.1	112.4	11.0	14.0
4	유통 및 도소매업	60.1	60.8	61.5	6.0	3.4
5	정보통신	27.7	30.8	32.1	3.1	4.9
6	수송 및 창고업	26.1	25.8	25.9	2.5	3.4
7	전기, 가스, 수도	22.2	23.0	22.7	2.2	8.9
8	건설업	21.4	21.4	19.4	1.9	2.0
9	전문, 공학, 기술업	7.1	10.1	11.8	1.1	21.2
10	숙박요식업	8.9	9.4	8.9	0.9	6.6
	미분류	229.3	265.0	251.5	24.5	6.2
	합계	993.6	1,043.6	1,026.6	100.0	6.3

주: 제조업이 2020년부터 기밀화되어서 표에 없음, 2001년 - 2020년 누계 투자액

자료원: 호주 통계청(2021.5)

(2) 한-호 투자 동향

□ 한국의 對호주 투자

- 2020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122건, 9억 8400만 달러 기록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제조업 및 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 및 보험업 및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함.
 - 투자금액 기준, 제조업 2억 1700만 달러로 평년보다 상승했으며, 광업 1억 5000만 달러, 부동산업 1억 6800만 달러 순으로 평년 기준 낮은 수준임.
- 한국의 對호주 투자 누계(1980-2020)는 신고 기준으로 2,276건, 220억 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 152억 달러, 금융 및 보험업 13억 달러, 부동산업 23억 달러, 제조업 11억 달러 순임.

〈한국의 對호주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0	115	39	767	1,171
2011	93	31	4,162	1,382
2012	84	27	4,408	2,237
2013	84	24	1,716	2,793
2014	72	15	844	1,673
2015	77	13	679	899
2016	118	38	1,595	1,306
2017	93	23	533	698
2018	144	29	303	473
2019	119	32	880	785
2020	122	28	984	657
누계(1980~2020)	2,276	808	22,032	16,101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호주의 對한국 투자

○ 2020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총 15건으로 신고기준 630만 달러 기록

- 2018년 GM 호주가 철수 및 한국으로 이전하면서 호주의 對한국 투자 내역 중 운송용 기계 부문에 대한 17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가 발생함.
- 2020년 호주의 직접 투자는 미국(28.4%), 영국(20.2%), 뉴질랜드(4.1%) 등에 52%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1% 미만임.
- 2020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 비중은 대분류 기준 서비스업 74.1%, 제조업 25.9%이며, 세부분류 기준 금융보험업(52.2%), 의약(23.7%), 자동차 및 부품(9.7%) 순임.
- 한편, 호주의 대한투자 누계(1962 - 2020)는 신고기준으로 666건, 47억 7400만 달러를 기록함.

〈호주의 對한국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 건수	22	24	31	45	26	33	27	15
신고 금액	50,491	139,833	85,193	79,157	142,330	2,007,357	107,573	6,322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對호주 진출기업

○ 자원개발 및 현지 판매법인 중심 65개사 진출

연번	진출분야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지역
1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NSW, VIC
2		한국가스공사	Kogas Australia	QLD, WA
3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NSW
4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Australia	NSW
5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ity Power Corp. Australia	NSW
6	건설	GS건설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7		YG-1호주법인	YG-1	VIC
8		대구텍호주법인	TaeguTec Australia Pty Ltd	VIC
9		삼성물산(건설)	Samsung C&T Corp.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10		일진호주	Iljin Australia Pty Ltd	VIC
11		포스코건설	POSCO E&C Australia Pty Ltd	QLD
12	자원개발	SK네트웍스자원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NSW
13		썬메탈코퍼레이션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QLD
14		포스코	POSCO Australia	NSW
15		한국중부발전	KOMIPOA Australia	NSW
16		한화마이닝	Hanwha Mining Services Australia	WA
17		현대제철	Hyundai Steel Company	QLD
18	에너지	LG화학	LG Chem Australia	VIC
19		한화큐셀	Hanwha Q CELLS Australia	NSW
20	자동차	기아자동차	Kia Motors Australia	NSW
21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NSW
22		쌍용자동차	SsangYong Australia	VIC
23	타이어	금호타이어	Kumho Tyre Australia	NSW, VIC
24		넥센타이어	Nexen Tire Sydney	VIC
25		한국타이어	Hankook Tyre Australia	NSW
26	자동차 부품	모트렉스	MOTREX	NSW
27		현대모비스	Mobis Parts Australia	NSW
28	전자	LG전자	LG Electronics Australia	NSW
29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NSW, VIC
30	전선	LS전선	LS Cable & System	NSW
31		대한전선	Taihan Electric Australia	NSW
32	종합상사	GS글로벌	GS Global Australia	NSW
33		LG상사	Bowen Investment (Australia)	NSW

34		롯데상사	LOTTE International Oceania	QLD
35		삼성물산상사	Samsung C&T Cooperation	NSW
36		포스코인터네셔널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NSW
37		현대종합상사	Hyundai Australia	NSW
38	식품	농심	Nongshim Australia	NSW
39		CJ 뉴트라콘	CJ Nutracon Pty Ltd	QLD
40		매일유업	Maeil Australia Pty Ltd	VIC
41	의료기기	바텍글로벌	Vatech Medical	NSW
42		오스템	Osstem Australia	NSW
43	철도차량	현대로템	Hyundai Rotem	NSW
44	물류	글로벌비스	Glovis Australia	NSW
45		판토스	Pantos Logistics Australia	NSW
46		팬오션멜버른사무소	PanOcean Co. Ltd, Melbourne	VIC
47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Australia	NSW
48	금융	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Sydney Branch	NSW
49		신한은행	Shinhan Bank	NSW
50		우리은행	Wooribank Sydney Branch	NSW
51		한국산업은행	The Korea Development Bank	NSW
52	서비스	대한항공(주)	Korean Air	NSW
53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NSW
54		이노션월드와이드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NSW
55		현대홈쇼핑	Australian Shopping Network	NSW
56	방위/방산	한화디펜스	Hanwha Defense Australia Pty Ltd	VIC
57	비료	슈퍼퍼트동부	Superfert Donbu	WA
58	헬스케어	종근당바이오	Pacificblue Health	NSW
59		셀트리온	Celltrion Healthcare Australia	NSW
60		코스맥스엔비티	COSMAXNBT Australia	VIC
61		유한양행	Yuhan ANZ	SA
62	IT	삼성SDS	Samsung SDS Global SCL Australia	NSW
63	뷰티	아모레퍼시픽	Amorepacific Australia	VIC
64	면세점	롯데면세점	Lotte Duty Free Australia	VIC
65	스포츠	질롱코리아	Geelong-Korea	VIC

Ⅶ. 무역관 및 직원 연락처

1. 멜버른 무역관

- 주소 : Level 12,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 3004
- 전화 : +61-(0)3-9860-0500 / 팩스 : +61-(0)3-9860-0509

2. 개설일자 및 법적지위

개설일자	법적지위	인원(명)		
		본사	현지	계
1973.08.15.	외국정부기관	2	10	12

3. 관할지역 :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 등 3개 주

4. 직원 및 기타 연락처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관 장	최규철 관장	03-9860-0501	무역관 업무 총괄
부 관 장	예광호 과장	03-9860-0502	마케팅/조사/취업, 기획예산
*주호주 멜번분관	전한일 총영사	03-9533-3800	-
	백광석 영사	03-9533-3812	-
	김나경 영사	03-9533-3813	-

/끝/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